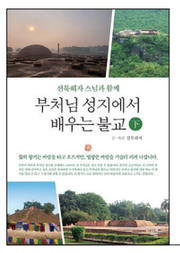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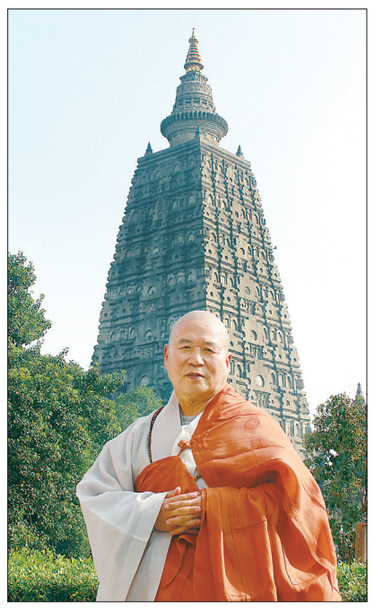
성지를 걷다, 가르침을 만나다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 下
혜자 스님 글 · 사진
시간여행
2만원

순례문화 새 역사 쓴 혜자 스님
부처님 전법 여정 순례기 2권 완간
유적에 얽힌 교리 해설로 이해 도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자리에 세워진 마하보디 대탑 앞에 선 혜자 스님.
사진 제공=도서출판 시간여행



부처님이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설하신 영축산의 여래향실.
사진 제공=도서출판 시간여행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도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네 곳의 성지를 일러 주며, 그곳을 생각하고 예경하는 공덕이 곧 부처를 뵙고 법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108산사순례기도회로 한국불교 순례문화의 새 역사를 쓴 선묵 혜자 스님(도안사 회주)은 〈부처님 성지에서 배우는 불교〉를 통해 부처님의 전법 여정을 따라 성지에서 불교를 배우는 길을 펼쳐 보인다. 지난 2024년 9월 상권을 펴낸 데 이어 1년 5개월 만에 하권을 출간했다.

이 책은 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쿠시나가르의 4대 성지를 시작으로 라지기르·바이샬리·슈라바스티·상카시아의 8대 성지에 이르는 여정으로, 각 장소에서 설해진 교리와 경전, 인물과 사건을 촘촘히 엮어 낸다.

상권이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최초의 설법과 열반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갔다면, 하권은 불교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불교 교화의 중심지인 라지기르에서는 죽림정사와 제1차 결집, 영축산 설법, 세계 최고·최대의 불교대학인 나란다 대학을 통해 교단의 제도화와 대승 사상의 맹아를 살핀다. 부처님이 〈반야심경〉, 〈법화경〉 등의 경전을 설하신 영축산에 오른 혜자 스님은 "산 아래로 번성했던 큰 도시의 흥망성쇠는 급류처럼 요동치다가 다 스러졌지만, 우담바라 같은 소중한 가르침은 면면이 남아 우리에게까지 와 닿는다"는 소회를 피력했다.

이어 부처님이 처음 삭발염의한 바이샬리에서는 비구니 승단의 성립과 제2차 결집을 통해 불교의 포용성과 역사적 긴장을 함께 조망한다. 슈라바스티에서는 〈금강경〉을 비롯한 교리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상카시아에서는 도리천 강하 설화를 통해 부처님의 위신력과 신앙적 상징성을 되새긴다.

각 장의 끝에는 지역의 불교 유적과 그에 얽힌 교리, 사상, 관련 인물 등을 소개해 성지가 과거에 머문 유적이 아니라 불교 사상과 신앙이 살아 움직였던 현장임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2월 10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서 혜자 스님은 "2006년도에 108산사순례기도회를 시작해 2008년 네팔에 가게 됐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 성지 순례에 나서게 된 것은 불보살님의 큰 가피"라며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동안 부처님과 위대한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설한 부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불교를 바로 알고 정신을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혜자 스님은?

1964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강원에서 경학을 연찬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서울 도선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 사서실장, 불교신문 사장, 중앙종회의원, 군종특별교구장, 청담학원 이사장, 혜명복지원 이사장, 풍경소리 대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108산사순례기도회와 도안사 회주로 있다 2023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번뇌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



번뇌와 함께 춤춰라
함현준 지음
운주사
1만5000원

고승 20인 일화로 읽는 일본불교
일상성·자비 실천 등 보여 줘
'지금 여기의 삶' 사상·문화 영향

어느 날 한 농부가 물었다.
"스님, 부처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논밭을 갈 때 정성껏 갈고, 씨를 뿌릴 때 마음을 다해 뿌리고, 추수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거두어들이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입니다."
"그럼 저도 부처가 될 수 있나요?"
"이미 부처이신데 무엇을 더 되려 하십니까?"

–하쿠인 선사(1686~1768)

〈번뇌와 함께 춤춰라〉는 일본 불교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긴 고승 20명의 일화와 핵심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난해한 교학적 설명 대신, 짧은 이야기 속에 수행의 정수를 담아 일본불교의 면모를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는 일본불교의 특징을 대중성, 단순화, 일상성, 자비의 실천, 현실 긍정, 그리고 혁신의 용기에서 찾는다. 이는 일본불교를 신비화하거나 이국적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수행자들의 삶을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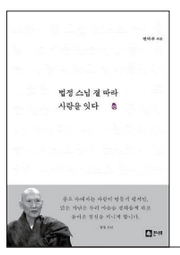
하쿠인, 도겐, 호넨, 신란, 잇큐 등 이름만으로도 일본불교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사상 체계를 분석하기보다 삶의 한 장면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다.

앞서 인용한 하쿠인의 일화는 일본 선불교의 생활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논밭을 가는 일상의 노동이 곧 부처의 행이라는 선언은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다. 타쿠안은 번뇌를 없애려는 집착 자체가 또 다른 번뇌임을 일깨우며, 도겐은 호흡하고 걷고 앉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겐신의 정토사상 또한 극락을 사후의 세계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에서 구현되는 삶의 태도로 풀어낸다. 수행은 특별한 의식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라는 메시지가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일본불교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일본 사상과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도겐의 시간관은 근대 일본 철학의 존재론에 스며들었고, 선불교의 무심과 직관은 일본 특유의 미의식과 예술관에 적지 않은 자취를 남겼다. 정토사상의 인간관은 윤리 사상과 민중 신앙의 토대가 됐다. 책은 일본불교가 하나의 정신사적 흐름이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여수령 기자

명상과 사랑으로 새기는 법정 스님 글



법정 스님 결 따라 사랑을 잇다
변택주 지음
큰나무
1만7800원

스님 글 속 '뜻 사리' 찾는 과정
"명상과 사랑은 부처로 사는 법"

〈법정 스님 결 따라 사랑을 잇다〉는 법정 스님의 오랜 제자인 변택주 작가가 스님의 글을 화두 삼아 '뜻 사리'를 찾아가는 책이다.

저자는 2015년부터 여러 모임에서 법정 스님의 책을 소리 내어 읽고 뜻을 나눠 왔다. 지난해에는 '책을 켜다, 나를 켜다'라는 이름으로 매달 두 차례 스님의 책 〈진짜 나를 찾아라〉를 읽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모임을 열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스님의 '뜻 사리'를 '명상하기'와 '사랑하기'로 제시한다. "늘 깨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참답게 저를 바꾸며 안으로 깊어지는 것이 명상"이고 "따뜻한 눈길로 끝없이 보살피는 사이에 어리어 오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깨우침이다.

또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인 '눈부처'를 통해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라는 당부를 전한다. 곧 "모든 사람이 스스로 내면의 부처를 모셔 내어 날마다 새로운 부처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일깨움이다.

여수령 기자

나의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장례희망
'너의 작업실' 작업인 18인 지음
북심
1만6800원

자기 죽음 준비하며 쓴 부고장
죽음 통해 삶의 소중함 통찰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절차인 장례식은 어떤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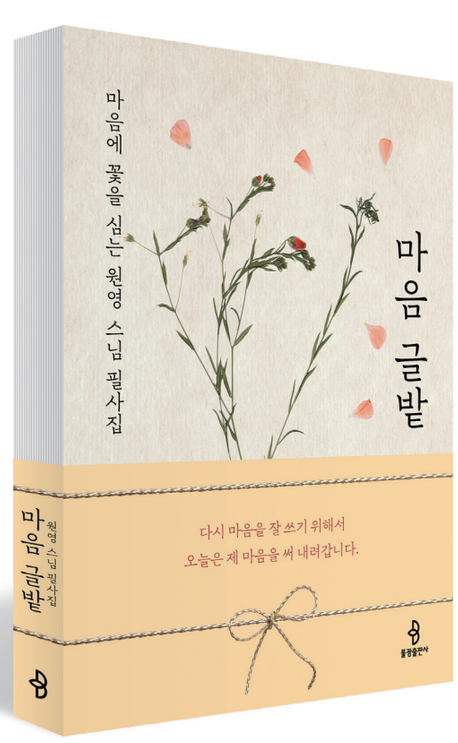
〈장례희망〉은 언제가 다다를 삶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며 쓴 '장례식 초대장'이자 '내가 쓴 부고문'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독립서점 '너의 작업실'이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매일 글쓰기 온라인 모임'에서 회원들이 마음을 나누며 쓴 글을 모았다.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은 각자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남기는 말은 한결같다. 그동안 고마웠노라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글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록이라기보다, 오히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다. 늘 곁에 있는 사람, 집 앞에 핀 작은 꽃, 따듯한 커피 한잔 등 일상이 더욱 고마워지는 순간들이다.

여수령 기자

켜켜이 쌓인 오래된 마음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삶을 한층 가뿐히 살아가도록 돕는 원영 스님의 '마음 글밭'에서 노닐다!



마음 글밭
마음에 꽃을 심는 원영 스님 필사집
원영 지음
240쪽 | 22,000원

공들여 선보이는 불광출판사의 첫 필사책

삶을 통과하며 다져진 원영 스님의 문장 세계를
이제 필사로 만나다!
하루 한 장씩 채울수록 한 겹 가벼워지는
100일의 마음 리셋 여정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